

스포츠토토, 최소한 범위에서 운영 경비 조정해 경영 개선

- 11. 8. 문체부, 권익위 중재로 스포츠포토토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영 개선 조정안 합의
- 경영적자 완화로 스포츠포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8일(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스포츠포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과 함께 스포츠포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포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며 경영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스포츠포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포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2022년 9월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단과 스포츠포토토코리아는 그간 사업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포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포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조정해 경영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정산항목의 잔여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해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된 인건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스포츠평토포코리아는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 스포츠평토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한편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조정안 합의에 참석한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스포츠평토포코리아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조정안 합의를 통해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평토평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체육국 체육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정태경 (044-203-3111)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진 (044-203-3119) |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